

주제: 다시 중보기도를 말한다!

강사: 이정현(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 1990년대 말부터 중보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알리는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책은 이동원 목사의 “중보기도 사역론”(1997), 필자의 “중보기도”(1998), 명성훈 목사의 “하늘 문을 여는 중보기도전략 52가지”(1999), 그리고 전용복의 “생명력있는 기도-중보기도”(1999) 등이다. 이런 것들 외에 필자의 “성령의 중보사역”(성경신앙, 1999)이라는 제목의 작은 아티클과 월간목회(2001년 3월호)에서 “중보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특집 주제로, 박준서 교수의 “누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는 자인가”, 박형용 교수의 “성도는 다른 성도의 중보가 될수 없다”, 신성중 목사의 “중보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고영민 교수의 “중보기도, 교회 부흥을 지피는 불씨가 되게 하라”는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논고들이 있다.

국내의 이같은 저서들과 아티클보다 앞서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초부터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연대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위레스(G. P. Wiles, 1974)의 “바울의 중보기도”(Paul's Intercessory Prayers-The Significance of the Intercessory Prayer Passages in the Letters of St. Paul), 미첼(C. C. Mitchell, 1982)의 “성령의 중보사역”(The Holy Spirit's Intercessory Ministry), 바렌틴(S. A. Balentine, 1984)의 “중보자로서의 선지자”(The Prophet as Intercessor : A Reassessment), 오벵(E. A. Obeng, 1984, 1986)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중보사역의 동기”(The Spirit Intercession Motif in Paul)와 “로마서 8:26에서의 성령의 중보사역의 기원”(The Origin of the Spirit Intercession Motif in Romans 8:26), 오브리엔(P. T. O'Brien, 1987)의 “로마서 8:26, 27-기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인가”(Romans 8:26, 27-A Revolutionary Approach the Prayer?), 그리고 헤버트(D. E. Hiebert, 1992)의 “크리스찬 중보기도의 중요성”(The Significance of Christian Intercession) 등이 있다.

이런 아티클들과 맞물려 수많은 관련 책들이 나오게 되고, 전문 세미나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된다. 작금의 한국 교회적 상황을 볼 때, 외국에서 나온 이같은 글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운 것들에 영향을 입어 책을 쓰고 또한 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의 모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두는가 하면, 몇몇 신학대학원에서는 공히 교수의 지도하에 캠퍼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교파를 초월하여 개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을 구성하여 훈련과 함께 실천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던 중 최근에 예장 합동측에서 ‘중보기도’의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1999년 12월 총회 신학부 제2분과 위원회에서 긍정적·부정적 입장에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신학적 검토 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 9월 총회에,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함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 용어를 피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라 함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보고하였다), 크리스찬 잡지와 신문의 독자들과 인터넷 전문 사이트의 크리스찬 네티즌들, 무엇보다 교회에서 실제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자들과 전문 사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보자’, ‘중보기도’, ‘중보사역’이라는 용어사용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과 교회사의 조명을 통해 신학적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실제 중보기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중보기도의 어원적 고찰

1)구약

기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십가지이다. 그 중에서 ‘팔랄’의 히트파엘 형식인 테필라(tefillah)는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여기에(팔랄) ‘중보하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de Vaux 1961:). 예를 들어, 사무엘상 2:25에, “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위하여 간구하겠느냐”에서 ‘간구하다’는 말에 ‘팔랄’의 변형어(이트팔렐-로)가 사용됨으로 ‘여호와께 죄 지은 자를 위해 중보의 간구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하밀턴(Victor P. Hamilton)은 가끔 이 단어의 명사와 동사가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와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성전봉헌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고 했다(Hamilton “פָּלַל”:726). 한 예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왕상8:28)에서, 처음의 ‘중의기도’와 마지막의 ‘비는기도’에 동일하게 ‘테필라’가 사용되었다. 성전을 완공한 후 드린 솔로몬의 이 기도는 기근과 전쟁, 범죄함으로 인해 곤궁에 처하게 될 때 백성들을 도와달라는 기도이다. 이는 민족을 위한 전적인 도고이다. 테필라에 관해 바렌틴(S. E. Balentine)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로 구약에 총 79회 나타나며, 그 중 16번은 ‘...를 위해 중재하되라 쓰였다’고 주장한다(Balentine 1984:162).

팔랄(테필라)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가’(פָּגַע)이다. 파가의 원뜻은 ‘(생각이) 떠 오르다’였으나 후에 ‘청원하다’, ‘추궁하다’란 뜻을 가지게 되었고(Grider 1960:290), 후에 ‘만나다’, ‘도달하다’, ‘도고하다’, ‘탄원하다’란 뜻으로 구약에 44회 나타나며(Hamilton 1980:714-716), 인간(룻1:16, 창23:8, 렘15:11, 36:25, 사53:12, 59:16)과 하나님(렘7:16, 27:18, 욥21:15)에 대한 중재의 상황 안에서 사용되었다(Brown 1974:803).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렘7:16)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사용된 ‘...를 위하여 조르다 혹은 간청하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금지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렐42:1-27).

여기의 두 단어, 테필라와 파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한 간청’임이 분명하며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2)신약

‘중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μεσιτης)인데, 이것이 신약에 6회 나타나고(갈 3:19-20, 딤후2:5, 히8:6, 9:15, 12:24), 동사로도 한번 사용되고(히6:17), 구약에서도 한번 사용된다(욥9:33-판결자 in LXX). 박형용 교수는 여기에 거론된 모든 구절(구약 제외)에서 나타난 ‘중보(하다)’의 용례는 일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헬라어 메시테스/메시튜오는 오늘날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보기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박형용 2001:55).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고’나 ‘다른 성도를 위한 간구’라고 해야한다고 했다.

메시테스가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연계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1, 4:5에 사용된 ‘도고’에 해당하는 ‘엔투시스’(εντευξις) 즉, ‘경건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라는 간구’를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별개로 취급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말한다. 전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고 기록하는데, 여기서의 ‘간구하다’가 ‘엔투그카네이’(εντυγχανει)로 되어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7:25의,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에서도 동일하게 ‘엔투그카네이’(εντυγχανειν)으로 표기 되어있다. 만약 중보기도 사역에 관한 메시테스가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는 전용어라면,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같은 저자가 같은 저서인 로마서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엔투시스가 아닌 메시테스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말할 때는 메시테스를 쓰고, 기도에 있어서는 엔투시스를 사용했다고 본다. 이것은 메시테스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그 문맥과 함께 읽을 때, 전부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사역과 관계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둘째로 바울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실체와 인간의 도고를 다같이, ‘-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같은 입장에서 보고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만약 로마서 8:34과 히브리서 7:25의 그리스도의 기도를 중보로 볼 수 있다면 디모데전서 2:1을 근거로 하여서 남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중보기도라 할 수 있고, 전자를 도고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도고로 불러야 할 것이다. 본인은 그것을 도고라 부르던 중보기도라 부르던 용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보기도가 곧 도고이며, 그것은 곧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 대신에 간청하는 기도인

것이다(그리더 “도고, 중보” 1986:163). 정규남 교수도 중보기도를 “간구자가 어떤 사람의 유익 또는 그밖의 어떤 것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 했다(정규남 1990:42).

구약에 비록 중보로 번역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다하더라도 ‘팔랄’과 ‘파가’에서 ‘중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물론 다음 장에서 더 많은 예들을 살펴봄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메시테스’와 ‘엔투시스’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역시 타인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2.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실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중보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자세한 것은 필자의 “중보기도”를 참고하라) 대표적인 몇 사람의 중보기도만 기록한다.

1) 구약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함을 보신 후, 그곳을 멸하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멸할 자와 망할 자 사이에 서서 도고한다. 비록 이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식구들은 심판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창19:29).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도 응답 받았으나 자기의 의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응답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창세기 20:17-18에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본인의 욕욕을 채우기 위해 사라를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순결한 자손을 위하여 사라를 보호하신다. 이방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 기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찌니라”(창19:17)고 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방의 주권자를 위해 중보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신다.

모세는 능력있는 중보 기도자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므로 바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된다. 그때마다 바로는 이 진노의 막대기를 제거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모세는 기도하였다(출8:12-13, 30, :33, 10:18). 하나님은 애굽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모세의 기도는 시내산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이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

청한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32:31-32). 이스라엘을 위한 생명을 내어놓은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의분을 잊게했으며 그의 백성들을 파멸시키지 않게 했다(Wright 1979:5).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로 그들의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민11:1-2).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형과 누이가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업수이 여기는 처사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세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민12:1-13). 미리암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된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동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때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엎드려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22). 고라와 그에게 속한 가족과 물건은 파멸되었으나 회중은 건짐을 받았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으며(삼상 7:5), 사울 왕이 폐위될 때, 근심하여 온 밤을 금식하며 기도했다(삼상15:11). 사무엘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백성들의 상처를 자기의 것으로, 민중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 긍휼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 외에도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민족의 운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에4:16-17),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왕상17:21-22),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간구했던 선지자의 기도(왕상18:41-46)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앗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그 위급하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그리하여 민족을 건졌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어린 중보기도는 유명하다(왕하19:14-19, 35). 선지자들 중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보기도 사역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간청한다(렘14:7-9). 비록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하나(렘14:10-12) 그의 기도 자체는 이웃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2) 신약의 중보기도

신약에서 예수님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중보기도를 하셨으며, 그 기도에 관해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 예수님에 비해 조금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성령님의 중보기도

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의 중보기도에 관해서도 논할 것이다.

(1)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6-9에서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 하셨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엿다 하시니라”. 3년동안 헛되게 자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을 보며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포도원지기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인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재적 역할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포도원지기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에 관해 타 복음서 기자들보다 누가와 요한이 더 관심을 갖고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두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보도록 하자.

①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전 예수님의 기도가 선행되었음을 알려준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눅9:18). 비록 본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겔든휘스는 ‘누가가 이런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앞서 기록하는 것은 20절의 질문(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겔든휘스 1983:307)라고 말한다. 오브리엔(P. T. O’Brien)은 ‘예수의 중보기도 결과 베드로에게 메시야됨의 비밀이 알려졌다’(O’Brien 1973:115)고 한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를 가리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 의해 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 대한 결과이다. 마태는 이 사실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고 밝힌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도고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회개가 가능했고,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것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으랴. 사단은 유다 뿐 아니라 베드로도 청구했던 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거센 세파 속에서 양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부르짖는 목자의 기도이다. “사단은 교활한 대적자(對敵者)로 활동하나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대도자(代禱者)로 행동한다”(겔든휘스 1983:248)는 겔든휘스의 말은 여기에 적합하다.

누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의 원수들을 위해 하신 기도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a). 이 본문은 가장 오래된 고대의 사본과 우수한 사본 중의 어떤 것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NA²⁷CLX** 등 다수의 사본과 이레니우스 이후 초대교부들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그 순수성은 인정된다(이상근 1984:358).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무화과나무에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기도에서 죄 많은 그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사야 53:12절 즉,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이며 또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마5:44)는 자신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적어도 누가가 전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위한 것과,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것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입하는 고백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한 것이며, 또한 신앙의 꺾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부분은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기도이다. 밀리간과 모울톤(Milligan and Moulton)의 다음 말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기도에 대한 그 어떤 묘사라도 이 기도의 숭고함, 비애감, 비장하면서도 고상한 특성, 부드러우면서도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어조를 다 형용할 수 없다”(Milligan and Moulton,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John). 루터(M.Luther)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멜랑톤(P. Melanchthon)은 “이제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 성자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 이 기도 만큼 고차원적이고, 그 만큼 거룩하고, 그 만큼 열매있고, 그 만큼 고상하게 들렸던 기도는 없었다”라고 썼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J. Knox)도 병들어 마지막 삶을 살 때 매일 이 기도문을 읽고,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이 기도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갈등을 겪을 때에는 큰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도고를 그 내용상 문단을 구분해 보면, 17:11-19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17:20-26까지는 미래의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다. 템플(Temple)은 전자를 ‘아들과 제자들’로, 후자를 ‘아들과 제자들과 세상’이라는 소제(小題)를 붙였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네가지이다(:11-19). 먼저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11)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11) 주님이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감이 기도의 이유이다.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하사...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 하신다. 이 기도 속에는 제자들의 ‘불행한 분열’에 대한 예수님의 염려가 있는 듯 하다. 원문의 ‘히나 오신’(ἵνα ὁσιν; 우리와 같이)은 본 기도에서 7회나 사용 되었으며(:11, 19, 21, 22, 23, 24) 그 중 네 번은 ‘일치’와 관계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되는 표준을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이며 완전한 일치를 표준으로 하여 하나되라고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헨’(ἐν;하나)을 덧붙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제자들은 여러 단위로써가 아니라 한 연합체’(not as units but as a unity)로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Barrett 1978:508). 원문의 의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한가지 사항은,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become one)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속 있게’ 해 달라는 간청이라는 사실이다. ‘하나가 되다’(become one)가 아니라 ‘하나이다’(be one)라는 점이 뚜렷하다. “여기의 개념은,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어 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의 단일체로 존속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카슨 1992:260). 악한 자는 거룩한 연합체를 파괴하여 분열시킨다. 그러므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로부터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존하사 하나됨이 파괴되지 않고 존속되도록 먼저 기도하신 것이다.

둘째는, 저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13)라고 기도하신다. 여기서의 ‘기쁨’은 제자들 안에서 발생한 것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쾌락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내 기쁨’(τὴν χαρὰν τὴν ἐμὴν)을 원문상 직역하면 ‘나의 것인 그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 요한의 강의법 중 하나이다(요한복음에는 내 사랑, 내 심판, 내 계명, 내 평안 등이 나타난다).

셋째는,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15)고 기도하신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15). 이 말씀은 성도들의 세상 생활의 비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대비되는 구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ἐκ τοῦ πονηροῦ)는 ‘악한 자’ 곧 마귀와 ‘악한 행위’로부터의 보전을 의미한다(Robertson, vol.5. 1932:275).

넷째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17)라고 기도하신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make holy or sanctify)는

“분리하소서”라는 뜻이다(모리스 1992:393, 카슨 1992:266). 반즈는 “거룩한 직분이나 목적을 위하여 따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 한다”(반즈 1993:395)고 했으며, 로버트슨은 ‘구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하나님 것으로 봉헌하는 것’을 나타낸다(Robertson vol.5. 1932:279)고 했고 헨드릭센은 “생활의 실제적인 성화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에 더욱 더 일치하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헨드릭센 1983:468)라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거룩하라’(ἁγιασμον)는 단어가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개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다’는 뜻을 간과할 수 없다(Turner 1990:79). 아무튼 주님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더 거룩해지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저희들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주님은 미래 공교회(universal church)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다(:20-26).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20-23).

여기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20)은 구 제자들의 말로 인해 믿게 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며, 그 내용은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의 단일화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나(:11) 여기서 다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단일체의 팽창 내지 신장을 위한 기도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적인 큰 조직체로써의 단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형제자매로서의 영적 단일체를 말하며 또한 그것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인종, 문화, 정치적 이념,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초월한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2부는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주 내용은 ‘그들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얻게하기 위함’이다(:24).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을 개괄하신다(:25-26).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24-26).

위의 두 복음서 외에서도 주님의 중보기도와 가르침을 소개하는 성경이 있다. 로마서 안에

서는 하늘에서 택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술되고 있다. “누가 정죄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이 구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네 단어 즉, 죽음, 부활,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중보자로 표현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서의 그리스도, 즉 현재 그리스도의 주 사역에 관한 부분이다. 로마서 8:34과 병행하여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간구를 명백히 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7:25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면이 곧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분이 연속됨을 지적한 것이다.

(2) 중보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보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복음 안에서 다섯 구절을 통해 살펴보기 원한다. 먼저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이다(눅6:27-28).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함으로써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레19:18)을 제한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고 폭행을 한다해도 복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다.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이다. 이런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행위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는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 사도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벧전3:9)라고 함으로 주님의 교훈을 반사하고 있다.

둘째는,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가지’이고, 뒷 부분은 ‘우리를 위한 세가지 간구’로 되어있다. 후자의 세 간구는 ‘양식’, ‘용서’, ‘시험’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여기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보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외에 타인에게 양식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이웃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청임과 동시에, 또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대신 중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 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11:5-8). 이것은 자신을 위해 떡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이다. 벗을 위해서 목마름과 주립의 자리에 대신 서는 예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올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눅23:28).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슬퍼하며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자녀를 위해 올라’는 말씀을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할 당연함이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 타락과 세속적 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사역은 현 시대를 볼 때 긴급히 요청되는 사항이다. 비록 자신들의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누가를 통해 예수님은 이웃의 필요를 위해, 모욕하는 자를 위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그의 제자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의 모범 -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또한 미래의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 -과 교훈을 본받아 중보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상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3) 성령님의 중보기도

성경은 기도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데, 먼저는 신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그리고 그분은 신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여기서는 신자의 기도와 관련된 성령님의 두 가지 역할 중 후자에 관해서만 논할 것이다.

우선 로마서 8:15절과 갈라디아서 4:6절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아바’라 부르는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로마서 8:15은 “ἐν ᾧ κράζομεν, Ἀββὰ ὁ πατήρ”(by which

we cry, Abba, Father)로,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이나 갈라디아서 4:6절에서는 “τὸ Πνεῦμα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εἰς τὰς καρδίας ὑμῶν κράζον Ἀββὰ, ὁ πατήρ”(The Spirit of the Son of Him into the hearts of you, crying, Abba, Father!)로 성령님이시다.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구절 사이의 문제 해결점을 로마서 8:15의 ‘엔 호이’(ἐν ᾧ)에서 찾은 스피어(W.R.Spear)는 “양자의 영은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엔 호이’(ἐν ᾧ)는 ‘그에 의해’(by whom)를 뜻하는 수단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바라 부를 때, 그것은 그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이다. 그 부르짖음은 어떤 모순이 없이 성도와 성령에게 다 해당되는 부르짖음이라”(Spear 1979:43)고 했다. 로마서 8:15절에서의 우리의 부르짖음이 곧, 갈라디아서 4:6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부르짖음이다. 리델보스(H. N. Ridderbos)는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성령이시며.....신자들과 함께, 그리고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치시는 이가 바로 그 분이시다”(Ridderbos 1953:157-158)라고 한다. 브루스의 가르침도 같다. “여기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시며, 로마서 8:15절 이하에서 성령에 의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우리’이다-이것은 같은 행동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 되었다”(Bruce 1982:200).

왜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는가? 그가 우리를 양자로 택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로써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Murray 1959:296)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로마서 8:15과 갈라디아서 4:6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할을 말한다면, 로마서 8:26, 27은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에 관해 가르친다. 여기에는 신자들에게 왜 성령의 중보가 필요한가? 성령의 중보의 본질(the nature of the Spirit’s intercession)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먼저는 성령의 중보사역의 필요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이 구절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확실한 보증이다. 사실 현 시대 속에서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은 ‘돕는 자’(Helper;παράκλητον)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두 간구자를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 법정에서의 자녀들의 간구자이시며(히7:25, 요일2:1) 또한 성령님은 자녀들의 마음의 한 복판에서 그들의 간구자이시다. 바울은 돕는다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적당한 단어로 ‘수난티람바 네타이’(συναντιλαμβάνεται)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직설법으로 ‘누구에게 가담하다’, ‘돕다’는 뜻(헨드릭센 1984:376)과 ‘다른 사람과 손을 붙잡다’(Robertson vol.4. 1931:377)는 뜻이 있다. 이 동사는 신약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본절과 누가복음 10:40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도움을 바라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

했던 마르다가 주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자기의 힘든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쓴 단어이다. 성령은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미첼(C.C.Mitchell)의 ‘갈’(γὰρ:위하여)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갈’이란 단어는 신자들의 큰 약점을 증명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소개된다(Mitchell 1982:231).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킨 ‘우리의 연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자는 다음 세가지 이유로 이 연약함은 비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본문은 기도의 확신에 대해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는다. 둘째, 성경 외적인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확한 이름과 기원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을 말하고 있다. 셋째, 바울은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비기독교인에 관해 ‘약함’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로마서 5:6이하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죄인들’, ‘경건치 않은 자’, ‘대적’ 그리고 ‘연약’이라 불리운다”(O’Brien 1987:66). 그러나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오브리엔은 지적했다. “로마서 8:26이하의 ‘영의 생명’(:1-17)과 ‘다가오는 영광’(:18-30)의 문맥 속에 나타난다. 이 문단은 오직 신자들과 관계될 수 있다. 바울이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연약함의 범주 속에 그 자신을 포함시킨다. 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는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능과 관계시키고 있다. 비기독교인이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도는 26, 27절의 이 모든 부분에 관해 주해하지 않는다”(O’Brien 1987:66).

우리의 약함이 육체적 약함, 도덕적 약점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력의 부족일 수 있으나 대다수는 문장 속의 ‘아스데니아’(asdenia)는 타락의 결과로써 야기된 인간의 근본적인 부족함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οὐκ οἶδαμεν:we do not know)의 목적을 바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테오도르 잔(Theodor Zahn)은 ‘우크 오이다멘’(οὐκ οἶδαμεν:우리가 알지 못한다)의 목적(대상)을 ‘카도 데이’(καθὸ δέι:우리가 마땅히)에 한정시켰으나(O’Brien 1987:66) 오브리엔은 한정된 관사 ‘티’(τι:무엇을)에 의한 앞에 놓인 전 구절을 지적하면서 “원래의 어순과 한정된 관사의 위치는 잔의 해석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O’Brien 1987:67)라고 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이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교훈(가르침)의 부족이기도 하며 기도할 내용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주석가와 많은 영어 번역들은 원래의 것을 아래와 같이 표현함으로 느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RSV, NEB, Phillips). 따라서 바울의 지적이 바른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이 되게 한다. 그러나 헬라이어 본문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도는, 바울은 그것의 방법이 아닌, 바른 기도의 내용과 관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일을 방해한다고 느꼈고, 자기 사역에 제한을 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세 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전12:9)고 하셨다. 육체의 가시에서 건짐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기도의 방법을 모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른 것이다. 정당한 기도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필연적 요구에 적합한 것을 구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머리 1992:60). 원문의 ‘티’(τι)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how to pray)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what to pray or what to pray for)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흠정역(KJV)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we do not know what to pray as we ought)고 번역함으로 바른 기도와 관계한 신자들의 근본적인 무능에 주의하게 한다. 이것이 사도가 지적하는 우리의 연약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구약의 모세는 훌륭한 중보기도자이다. 그러나 그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무능력했다.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3:23-26). 이것은 강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였고, 더 이상 그러한 간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셨다. 모세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늘 약함 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바르게 드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보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26절의 첫 단어가 ‘이와 같이’인데 이 말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앞 문맥의 어떤 사실과 관계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과 기대가 백성들을 현재의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듯(:18-25),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 유지하듯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것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다.

둘째, 성령의 중보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며 그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로마서 8:26c와 27에 나타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하시느니라”는 많은 질문을 갖게 한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품어야 할 갈망을 우리 마음에 고무시킴으로 간접적으로 도고 하신다는 것인가?”(Calvin 1948:313). 이 탄식은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중보 하시는가? 탄식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같은 질문에 간단히 그 해답을 찾아보고 그분의 중보사역의 본질을 알아본다.

‘그의 중보사역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라는 질문에 탄식의 사역을 성령에게 직접 돌리

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음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중보임에 틀림없다. 첫째는 앞에서 본대로 갈라디아서 4:6은 성령이 직접 부르짖는다고 표현되어 있고 둘째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조적 형태인 ‘성령께서 친히’(αὐτὸ τὸ πνεῦμα: The Spirit Himself)를 사용한다. 모호한 의미이나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27절에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성령의 마음이란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감찰된 것이다. 셋째는, 성부 오른편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34절에 사용된 같은 단어 ‘엔투그카네이’(ἐντυγχάνει: 그가 중보한다)가 27절에서 성령의 중보에 관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직접 도고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단어가 27절에서는 간접적으로, 3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Kuyper 1969:636-637).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전자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다른 한 분은 지상에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중보를 거절하는 이유는 성경해석상의 이유가 아닌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결국 해석학적으로 언어의 본질적인 국면은 크리스찬 속에 계시는 성령은 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중보와 간접적인 중보, 둘다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스피어(Spear)는 여기서의 탄식은 “분명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욕망이나 갈망을 가리키는 것으로깊은 한숨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Spear 1979:45-46)한다고 했다. 존 머리(J. Murray)는 “내용, 의미, 취지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인위적인 형식의 말을 초월해 있는 것이며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머리 1992:61)라고 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며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우리 마음의 원함을 표현할 수 없으며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효과 있는 탄원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성도가 성령의 중보기도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팔머, 바레트, 케제만, 낙스 등이며, 불가능하다는 학자는 카이퍼가 그 대표이다.

그것을 인간의 귀로 혹은 양심으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 된다는 사실이다. “말할 수 없는”에 관해 크란필드(Cranfield)는 “성령의 탄식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취지를 표현 없이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Cranfield 1975:423-424)고 지적한다. 그러나 캐제만(Käsemann)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4:14-15의 ‘프로슈코마이 그로스세’(προσεύχωμαι ὁλώσῃ: I pray in a tongue: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와 같

은 것으로 연결시켜 놓지만(Käsemann 1980:241ff.), 미첼의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 탄식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성령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신자 자신의 영으로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두 현상 사이의 차이는 명백하다”(Mitchell 1982:237). “이 탄식이 일어나는 곳은 자녀들의 마음이며.....성도들의 탄식은 성령의 간구의 매개이며 탄식의 형식으로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다”(머리 1992:61).

이런 사실들은 다음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신자의 의지나 이해와는 별도로 성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축복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말로는 분명히 표현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탄식으로 천상의 그리스도처럼 중보기도 하신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성령의 중보기도의 효과이다. 성령의 탄식이 들을 수 없는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분명히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해된다.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된다. 만약 그가 인간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의 중보적 탄식들과 대화하기에 완전히 가능한 분이시다. 성부는 성령의 마음을 완전히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에 열거한 즉, “그는 하나님을 따라 중보하신다”(ὁτι κατὰ Θεὸν ἐντυγχάνει)는 성령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원문 ‘호티’(ὁτι)를 ‘왜냐하면’(because)의 원인절로 번역하며(KJV, NIV, RSV, LB, NASB), 케제만은 이것을 “받아들여진 견해”라고 말한다(Käsemann). 이런식으로 ‘호티’(ὁτι)를 취하는 것은 신의 뜻에 따른 성령의 중보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것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Mitchell 1982:238). 크란펠드도 같은 의견으로, “호티는 ‘왜냐하면’ 또는 ‘위하여’ 보다는 ‘그것’(that)의 의미가 더 낫다(참고로 왜냐하면 그 구절은 왜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그 무언에 관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호티’가 전체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첼은 ‘그것’(that)과 관련된 세가지 사항을 지적한다. “첫째,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이 중보의 본질임을 아신다. 둘째, 아버지는 그 중보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아신다. 셋째, 성령의 마음을 아심으로 성부는 성령의 중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나타낸다”(Mitchell 1982:238).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는 원문상 강조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된다(Mitchell Ibid.). 이 성령의 중보적 탄식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분명히 중보에 있어서 성령은 기독교인들의 부족한 기도를 돕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요일5:14-15). 이 구절의 사상을 헨드릭센은 잘 포착하였다.

“.....탄식이 동반된 성령의 간구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함으로 그 결과 이 탄식으로 간구하심은 항상 효력이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모든 간구들은 마침내 하늘에 상달된다”(헨드릭센 1984:380-381).

로마서 8:26-7은 성자 뒤에 오신 다른 보혜사의 중보사역에 관해, 주요한 세가지 사항을 기술한다.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해 무지하며 무엇을 위해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크리스찬은 불완전하며, 미성숙하며 그리고 불충분한 존재들이다. 이런 무능력을 바울은 자신을 포함시켜 ‘우리의 연약’이라고 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한다. 성령은 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돕는 자로 계신다. 둘째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결코 내용이나 의미,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중보사역은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드러진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아버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령의 탄식을 완전히 이해하시며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간구함을 아신다. 성령의 중보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100% 성취될 것이다.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해하시도록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전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4) 바울의 중보기도

바울은 하나님이 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교회가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가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개종 후에는 물론 그 이전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단지 성전과 유대교 회당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로서의 사울의 모습과 다메섹 사건 이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바운즈는 다음과 같이 그를 극찬한다. “바울의 시대도 좋고 바울의 은사도 좋지만 바울의 기도는 더욱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시대를 이룩했으며 바울의 은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Bounds 1990:550).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요, 심장이요, 뼈대요, 골수였다. 그리고 복음의 전동기이며 승리를 점치는 표시였다”(Bounds 1990:552-553). 그는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했고 또한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이 말은 바울이 늘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는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했고 또한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평소에 기도했던 그의 중보기도를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들을 통해 알아

본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 파선하고 델리데 섬에 불시착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276명의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을 베풀었다. 병들어 있는 자기 부친에게 바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친절히 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바울은 이곳에서 뱀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어떤 권위와 능력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 섬이나 사막에서 만날 수 있는 이같은 병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병일 수 있다. 바울이 그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 결과를 간단히 적는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8). 그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섬에 또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대풍에 표류하다 우연히 이 섬에 도착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 준비된 영혼이 있었다. 바울은 중보기도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한 것이다.

로마서 1:9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는 말씀이 있고 같은 구절 앞 부분에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은 로마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다는 것과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로마교회 뿐 아니라 골로새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1:9-12).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3:10-13). 비록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표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표현을 씀으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게 된다.

교회 뿐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1:3에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의 ‘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가리킨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시 ‘루스드라’

에서 디모테를 만난 이후(행16:1-3) 지금까지 사도는 그를 위해 밤낮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디모테가 디모테 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유산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3. 중보기도의 예배사적 배경

공중예배시 중보기도가 들어있는 예배 형태는 저스틴의 변증서에서부터 나타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스틴의 제 1변증서(A.D. 140년 경 순교자 저스틴이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서이다)에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맥스웰이 재구성한데서 볼 수 있다(맥스웰 1994:29). 이 예식서(?)는 기원 후 2세기 로마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으로 고전적인 것이다. 이때의 중보기도는 다락방예전에 포함된 성찬기도의 일부이다. 중보기도 앞 뒤의 몇가지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성찬기도(Prayer of Consecration)

감사기도(Thanksgiving)-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속에 대하여

수난의 회상(Memorial of Passion:Anamnesis)

성물봉헌(Oblation of gifts)

기원(Invocation)-축성(Epiclesis: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Intercessions)

회중의 아멘(People's Amen)

성체 분할(Fraction)

배찬(Communion)

폐회(Dismissal)”(맥스웰 1994:2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의 요소들이 첨가 또는 삭제되기도 하나 중보기도가 포함된 예배 형태는 3-4세기의 예전사에 그대로 나타난다. 오히려 4세기의 클레멘트 예전(Clementine liturgy)에서는 그것이 강화되어 수록된다. 그래서 그 표기가 단순한 “Intercessions”이 아니라 “Great Intercession”이란 타이틀로 들어있다(맥스웰 1994:47). 그러나 교회가 동, 서방 교회로 분리되면서 이 순서가 사라졌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거의 볼 수 없고 있다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보기도’가 들어있는 고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다시 되찾은 사람은 종교개혁기의 독일인, 디볼트 슈바르츠(Diebold Schwart)이다. 고대교회의 그것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특징은

고대 것은 중보기도의 순서가 성찬기도의 말미에 들어있는 반면 여기서는 초두에 드러진다. 이후, 칼빈이 만든 예배 의식에도 “중보기도”의 순서가 분명히 있으며 또한 그것이 슈바르츠와 부처의 순서와 거의 동일시점에서 시행된다. 우리에게 친근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중보기도’ 순서를 확실히 명기하나 이전과는 달리 ‘말씀의 예전’ 부분에 속해 있다. 한국 교회 예배형태의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따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헌법).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성경봉독, 시와 찬송, 공식기도, 강도”란 타이틀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라는 소 제목으로 중보기도를 9쪽 분량으로 넣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범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서울시에 소재한 교회의 주보를 수집, 분석해 본 결과 예배의 순서로 ‘중보기도’를 넣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다. 210개 교회 중 2개 교회에만 그 순서가 들어 있었다. 목사로 임직할 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지키기’로 서약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은 회중들을 비롯한 목회자 자신조차도 그 기도의 의미,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예배 중 이 순서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4. 중보기도의 실행과 활성화 방안

여기서 쓰고자 하는 것은 개인 중보기도자나 교회와 선교단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도구의 실제적인 면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것들을 취급했다면 이제는 그 이론들을 근거로 어떻게 중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은 개인의 체험과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어떻게 중보할 수 있는지의 방법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Q.T.활용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Q.T.와 전혀 다른 점은 성경에서 기도제목을 얻지 않고 미리 얻은 피중보자의 정보에서 기도제목을 찾는 점이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를 쓰는 일이 없다. 단지 중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한가지는 끝맺음을 찬송으로 하지 않고 말씀의 확신으로 한다는 점이다. 송영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놓고 의심함으로 구한 것을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 개인적으로 중보할 때

(1) 먼저 정보를 얻으라. 중보기도의 폭은 넓다. 개인, 교회, 국가와 세계가 포함된다. 광의적 기도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마음이 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기도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얻어야 한다.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도제목을 찾으려면 신문이나 T.V.에 주의해야 한다. 바르트가 ‘설교자는 한손에 성경을, 다른 한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했듯이 중보기도자도 그래야 한다. 웨슬리 듀웰 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신문을 통해 인도를 위해 기도할 제목을 찾고 T.V.를 통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할 거리를 찾는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P. Johnstone이 지은 Operation World(세계기도정보)라는 책의 매 페이지에서도 의미 깊은 기도제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후보나 광고를 참고하면 된다. 거기에 이사한 사람, 입원한 사람, 소천한 사람의 가족들, 출산한 사람 등의 사연이 나타난다. 하지만 후보와 광고로도 정말 기도해야 할 시급한 교회의 문제가 알려지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들은 주로 영적인 필요와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중보기도자는 늘 깨어서 이것에 유념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중보제목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하나 제 삼자를 통해서도 정보는 얻을 수 있다. 개인의 기도거리에 관해서는 피중보자가 중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정보를 얻었으면 이것을 노트에 기록한다. 되도록 시급하고 위급하다고 판단 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위급한 기도와 장기적인 기도란을 따로 만들어 놓고 기록하는 것도 지혜롭다.

(2) 기록한 것을 여러번 읽으면서 암기한다. 암기해야 할 이유가 있다. 기도를 눈 뜨고 하나 하나 해 나갈 수 있으나 보통은 눈을 감고 연이어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쓴 것을 펴 놓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며 중보할 때 노트를 펼 수는 없다. 중보기도 제목을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우지 못했다고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중보자의 정보를 생각하며 머리에 떠 오르는데로 기도할 수 있다.

(3) 골방을 찾으라. 기도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것은 복이다. 산과 들판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정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배당이 무난하지만 가정의 마루나 다락방도 될 수 있다. 도고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단계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가급적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시간이라야 한다.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잡지 않는게 좋다. 하다가 너무 힘겨워지면 시간이 자기에게 ол무가 되어 기도의 기쁨을 잃을 수도, 또한 형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해놓은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기다려져야 한다. 처음에는 20분 내지 30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늘려가면 좋을 것이다. 한 번 정하면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주지말고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시간이자 나를 통해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5) 찬송으로 접근하라. 찬송은 기도의 한 유형이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찬송가 안에는 상당수의 가사가 인간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한 형태라

고 말할 수 있다. 제목 분류에서 ‘성도의 생애’ 부분은 그 가사의 상당량이 사람들의 간구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웨슬레가 작사한 372장 “나 맡은 본분은”의 가사는 찬송자의 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뵈을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멘.” 그러나 이와같은 간구형의 가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숭경의 내용이 있다. 30장의 1절과 4절, 6장, 40장의 4절은 좋은 찬양에 속한다. 이것들은 순수한 찬양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며 구속과 은총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본인은 소원의 간구로 되어있는 가사는 주로 기도회나 전도집회시 사용될 수 있고 숭경의 찬송은 공예배의 앞 부분과 성가대의 찬양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 중보기도시의 찬송은 마음의 소원을 곡조에 담아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복음성가도 유익하다. 여기서의 찬송은 기도 그 자체로 이해되기도 하며 또한 기도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6) 마음을 토해 놓으라. 찬송과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기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마치 한나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듯이.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기 전에 입술을 여는 것은 가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중보기도는 타인의 형편, 처지 그리고 심정을 내가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 형식에 빠지기 쉽다. 심정의 토로가 되어야 한다. 암기한 것들을 머리에서 하나 하나 꺼집어 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마음을 쏟아부은 기도였음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말씀이 증거하지 않는가.

그런데, 준비된 내용에 따라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교회의 어떤 사람이 계속하여 생각나게 되면(또 어떤 일일 수도 있다) 그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스케줄(schedule)을 뛰어 넘어 일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우선 순위와 그분의 우선 순위가 전혀 다를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선하신 개입을 수납하는 것이다.

(7) 말씀으로 확신하라. 의심없이 믿음으로, 또한 규정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단계이다.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21:22).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확신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이 아니시며 약속을 더디 갚는 분도 아니시다. 확신 이후는 기도한 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다.

2) 다수가 중보할 때

중보기도회로 모여 기도할 때에도 개인중보와 비슷한 순서를 지나 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리 기도제목을 노트하거나 외워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의점이다.

(1)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이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단히 드린다. 이때의 기도는 길지 않으며 기도모임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된다.

(2) 찬송을 부른다. 전체 기도제목과 연계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미리 5-6곡 정도 찾아 놓는다. 반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생경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거나 가사를 읽어주며 강조할 수도 있다. 기도회 앞 부분에 전체 찬송가를 모두 부른 후 제목에 따라 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제목에 따른 기도 앞부분에 한 두곡씩 부를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이 가사와 기도 내용이 연관되므로 더 효과적이다. 후자를 따를 때 전체 기도 내용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가사가 담긴 찬송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기도 인도자는 시간을 드려야 하며 전문가나 청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충고는 지도자가 알지 못하던 현대 감각의 곡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곡들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자연스런 울동을 곁할 수도 있겠다.

(3) 기도제목을 제시한다. 제시 전, 응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또는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중보기도의 위력, 기도의 필요성, 연합기도의 의의를 일깨움과 동시에 기도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준다. 그러므로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서로 나눔이 필요하다.

기도제목을 제시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타인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그 기도회 동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집사님 둘째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다는 ‘지난주 월요일에 김 .. 집사님의 둘째 아들 김 ..가 등교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데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오른쪽 발목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게 더 낫다. 그리고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내용이 구체적이 되지 못한다. 좀더 구체적이 되려면 그 아이의 건강과, 후유증이 없도록, 마음의 평안을

위해, 입원 중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간호하는 부모들이 피곤치 않도록,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자들의 효과적인 동참을 위해서 실제적인 사진을 보이며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좋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구호나 양식조달을 위해서나 선교사들의 현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설명하며 기도하게 한다. 이같은 사진은 전문기관이나 잡지, 신문, 광고지 그리고 선교편지에서 구할 수 있다. 개척교회를 돕거나 선교단체를 돕더라도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기도제목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사람은 본 것을 그리며 더욱 마음과 입으로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통성으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공중 예배시나 개인 기도회 때 적당한 기도 자세이며 대중 기도회 때는 이것과 아울러 통성기도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성경에는 조용한 기도를 말하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한다. 위경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잠잠하지 않고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들이 처한 다급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있지 못하게 했다.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매오는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자비를 간청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했으나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볼 수 있게 하셨다. 중보기도의 대부분은 위급한 기도이다. 오래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낫을 지금 대면해야 하는 일들이다. 차후로 미룰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이런 기도를 잠잠히 진행할 수 있는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셨다.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된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소리만 크게 한다고 그것이 곧 간절한 기도이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줄 알면 안된다. 소리를 높여도 위선된 기도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치 않으실 수 있다. 통성의 기도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된 기도이자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다. ‘위선자-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와 이방인들-중언부언 하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마 6:5-8)는 주님의 교훈에 통성기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기도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

(5) 마무리 기도를 한다. 이것 역시 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 방법은 기도를 다 마친 후 전체를 종합, 요약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기도할 때 한 주제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기도에 관해 지명된 자가 마무리 기도

를 할 수도 있다. 어느 방법을 취하든 간에 마무리 기도자는 몇 문장으로 기도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원 기도보다 더 장황하게 늘어 놓거나, 핵심없이 횡설 수설하는 것은 이미 드린 기도를 흐려 놓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마무리 기도자를 통해 타인의 동참을 더 얻으려면 마무리 기도자를 미리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번째 방법의 마무리 기도자는 기도 인도자가 되면 좋다. 주로 교역자가 된다. 중보기도에 동참한 사람들도 역시 교역자의 기도를 신뢰하거나 또한 준비한 자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음을 알고 기도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를 바란다. 그리고 전체 기도를 끝내면서 마무리 기도를 교역자가 할 때에는 기도회 참여자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하는 것도 잊지말라. 이들이 여기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6) 영광의 찬송을 드린다. 이때 드리는 찬송은 순전한 나드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순도 100%의 송경이어야 한다. 더이상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시간도 아니다. 오로지 주님의 높음과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40장의 후렴이다. 이것을 일어서서, 눈 감고 2, 3번 반복해서 부를 수 있다. 또는 ‘할렐루야 송’을 드려도 좋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곡도 적당하다. 그외 많은 곡들을 찬송가와 복음성가곡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 찬송을 시작할 때 지시없이 인도자가 자연스럽게 선창할 수 있다. 그러려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곡이어야 한다. 만일 지도자가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곡과 가사를 선창했을 때 다수의 참여가 불가능함으로 인도자의 독창으로 쓸쓸히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부를 찬송에 대한 회중의 선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해가 없는데도 불러야 한다면 반주자와 회중들에게 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으면 은혜로운 기도회 분위기가 될 수 없다.

(7) 말씀으로 확신한다. 합심기도의 위력에 관해 일찌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 마음을 합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행4:24-30)라고 기도했다. 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압과 위협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키 위한 연합작전으로 합심기도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위협과 핍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당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선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킨다.

3) 예배시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예배의 중반에 들어있고 설교 이전의 순서이다. 매 주마다 다른 중보기도 제목을 세가지씩 주보에 기록한다. 주보에 기록되는 도고의 내용은 주로 신문, T.V., 전문서적에서 얻은 것이다. 국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기도 제목도 취급하고 또한 영적, 육적인 문제도 게재한다. 도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청중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주보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 관련된 잡지나 신문, 서적을 제시하며 상황을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다. 선교사들로부터 온 편지나 사진을 소개하며 기도 제목을 던질 수도 있다. 때로는 중보기도의 능력,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회중들의 합심기도는 오르간 반주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2-3분 정도의 기도가 끝나면, 오르간도 부드럽게 종결하고 미리 정해진 마무리 기도자가 주어진 세가지 기도제목에 따라 요약기도를 한다. 주의할 점은 가급적이면 주어진 기도 제목에 따라야 하고 긴 기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때때로 훈련되지 못한 기도자는 그 제목을 놓쳐 버리고 횡설수설하다 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만다. 전체를 기도하려다가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부단히 그들을 지도해야 하며 맡은 자는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마무리 기도자는 보통 한달 전에 발표되며 기도제목은 2-3일 전에 개인에게 통보된다. 가급적 제목에 따라 기도를 종이에 쓰면 좋겠다. 그것을 읽되 마음을 쏟아부어 즉석 기도하듯 하면 된다.

보통 현 교회에서는 이 순서 대신에 ‘대표기도’를 둔다. 하지만 본인은 ‘대표기도’의 기원과 폐단을 알고 난 후 그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배에서 실행하지도 않는다(참고, 본인의 논문:Forms and Practice of Public Prayer in Worship 1995:325-328, 349-356). 문제는 ‘대표기도’란 말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바르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록 ‘중보기도’란 용어를 주보에 기록해 놓고도 잡다한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중언부언 한다면 그것 역시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

공동예배시 교회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3가지 실재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목사 자신이 회중 앞에서 중보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회중의 중보자로서 회중의 요구를 청원하는 것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대표기도와 거의 구별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중재기도의 순서가 따로 없으므로 목사는 여러 순서에 걸쳐 많은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 개회기도시에 불참자들을 위해 중보 하기도 하고, 조명을 위한 기도시 선교사를 위해 중보하기도 하며, 헌금 기도시 교회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기도 한다. 목사가 여러 순서에 걸쳐 행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병든 자를 위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

를 위해, 외국에 출타중인 자를 위해, 입대할 자나 제대한 자를 위해, 새로 입교한 등록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중재기도는 목회기도, 대표기도, 그리고 기타의 기도와 성격이 다름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는 기능한 한 빨리 중보기도의 순서를 예배에 도입하여 바른 예배실행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도형식(Litany)의 중보기도이다. 아바(Abba)는 이 형태의 기도를, “각각 창화단구(唱和短句)와 응답 혹은 단순한 회중의 ‘아멘’으로 끝나는 짧은 기도로 이루어 진 것”(아바 1992:115-116) 이라고 했다.

“목사: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위에 복을 내리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형제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중: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목사:주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맡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며, 천대 받는 자를 위로하고, 병든자를 성실히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회중: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목사: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이 땅 위에 공의와 평화를 심게 하소서.

회중: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목사: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시며 생계가 불안정하여 빈궁한 자들을 먹이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중: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목사:오늘 교회에 등록한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회중: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목사: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목사:아멘.”

이때 회중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와 ‘아멘’이라고 함으로 탄원에 동참한다.

셋째는 초청기도(bidding prayer)의 형식이다. 이것은 목사가 기도 제목을 제시한 다음, 기도할 것을 청하고는 매회 잠깐 동안 묵도(또는 통성)의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아바 1992:116). 초청기도가 지니는 특성은 즉흥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정황에 알맞는 기도의 주제를 실행할 수 있고, 제시된 방향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점들이다. 한국교회의 예배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회중의 짧은 묵도보다는 통성기도가 더 적합하겠다. 이상과 같은 중보기도의 세가지 구조에다 그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매 주일의 기도는 신선하며, 너무 길거나 판에 박힌 모양에서 벗어나 예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가지 권고하고픈 것은 중보기도팀을 만들라는 것이다. 우선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광고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중보의 필요와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간간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지원서를 배포한다. 약 2-3주간에 걸쳐 지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일차 모임을 갖고 팀을 조직한다. 팀장과 서기만 두고 나머지는 중보기도자라 부르면 된다. 조직이 반드시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나 잘된 조직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팀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사회, 교회 그리고 개인들에게서 중보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현금의 주 사회적인 문제를 한 문장의 기도제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각 기관의 부장 및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들의 시급한 사항들을 기도제목으로 만들면 된다.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도제목을 발굴하되 이것은 구역장과 담당 교역자와 상의하면 좋은 기도제목을 찾을 수 있겠다. 팀장의 또다른 임무는 기도회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실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서기의 주된 일은 팀장이 준 기도제목들을 분명하고 호감이 가는 문장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또는 정리된 글을 복사하여 기도회 시 그것을 보고 기도자들로 중보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회원들이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비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목들을 순서별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일단 모이는데 힘을 써야한다. 모이지 못할 형편이면 서면의 기도제목을 받고 약속된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고 모든 주의 일에 우선적인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주의 일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듯이 이들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기도회는 주 중 또는 월 중 정기적으로 모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회집될 수도 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정해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제목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팀장과 서기의 지속적인 독려와 권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있으면 함께 나눔으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기도응답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나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늘 최고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5. 우리가 해야할 중보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약 성도들이 했던 도고의 내용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다양하며 깊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죄악과 부패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또한 그의 부인과 여종들이 받은 저주에서 건지사 생산케 해달라고 기도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렸던 진노의 막대기를 걷어 달라고, 시내산 밑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망하는 다베라 사람들을 위해, 형과 누이를 위해, 고라 자손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패역한 이스라엘과 교만한 사울 왕을 위해 중보한다. 에스터와 모르드개는 풍전등화의 유다민을 위해 기도했고 구두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그리고 메마른 땅의 단비를 위해 기도했다. 적군 앗수르의 퇴치를 위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중보는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를 즐겨 찾았던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기도도 보배로운 교훈이다. 또다른 구약의 부분, 특히 시편에는 백성들이 왕의 판단력, 장수, 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에서의 승리, 악에서의 보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신약 성도들의 중보는 구약의 그것들보다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게 사실이다. 바울은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안수로 낫게했다. 그는 또한 골로새, 로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환난 중에도 오래 참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의 사역과 경건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물론 이외에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있음을 보아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구, 신약의 중보내용들을 근거로하여 현대교회가 해야하는 도고의 내용들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로는 세계의 구석 구석을 살펴서 기도해야 한다. 세계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하루도 평안히 지나가지 않는다.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T.V., 신문, 그리고 잡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이 이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는 자는 이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와 무관한 얘기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 실천해야 한다. 주로 들려오는 국제적인 소식은 전쟁, 내전, 기아, 도덕적, 성적 타락, 테러, 폭발, 천재지변, 우상숭배, 기독교 박해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싸인으로 알고 기도처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중보를 사용 하신다.

둘째로는 국가적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가 주로 포함된다. 1997년 현금의 시급한 기도는 경제와 군사적인 문제일 것이다. 외채가 세계 3위이며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로 근로자들의 파업이 정국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자고 연일 강조한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경제회복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서 변화된 인간에 의해 바르게 성장하는 나라의 살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 안다. 바른 가치관과 인간됨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국이 되어 봐야 결국 그 부가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자에 의해서 경제가

회복, 운영된다면 그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유익과 같을 것이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북한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인간 우상화 정책이 파괴되고 속히 종교의 자유가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북한이 적화야욕의 꿈을 버리도록 기도함이 가하다.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권력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알아 권력을 남용치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다.

셋째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가장 소중한 기도 시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이다. 국제적, 국가적인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인즉, 교회 때문에 국가와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말해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교회화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존재의 근거가 되는 교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바른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의 능력있는 목회를 위하여, 교우들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박해로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말은 자들의 충성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예배모범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들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노소와 수룩에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찌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하고, 덜할 것은 주장하는 목사가 깊이 생각하여 작성한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다.

나가는 말

중보기도의 용어상 문제를 취급하면서, 신성종 목사와 고영민 교수는 ‘중보기도의 이중적 의미’ 라는 비슷한 견해를 말하면서, 이 용어가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릴 수 있는 중보의 기도로는 사용될 수 없고, 넓은 의미로의 중보적 기도는 드릴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필자가 갖는

의문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이다.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중보기도는,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며, 저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해 지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등등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심령과 태도,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충분히 갖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타인들의 영적, 육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신자는 계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술한 내용처럼)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그 일이 가능할뿐만아니라 열심을 내야한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한 방법이다. 이제는 용어의 문제를 다루기보다(사실 ‘중보기도’와 ‘중보적기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주님이 하신 기도의 의미를 담고있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모범기도’ 또는 ‘예가기도’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도고와 중보기도를 혼용하여 쓸 수 있으니 오로지 남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헌신해야 하겠다. 끝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못지않게 성령의 중보기도 사역에도 관심과 이해를 가짐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에 동참해야 하겠다. (끝)